



여인 • 72.7×53.0

이희완
원로 작가
초대전

이 희 완
LEE HEE WAN

2019.10.7
~2020.02

군산근대미술관

OPENING 2019. 10.7(월) 15:00

이 희 완

원 로 작 가

초 대 전 을

개 최 하 며

INVITATION EXHIBITION OF

LEEHEEWAN

시간의 순리에 따라 자연이 옷 갈아입듯
근대 미술관도 계절 따라 새 옷을 입혀줄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모시는 이희완 화백은 오랜 시간 묵묵히 붓을 잡고 종이에 채색 옷을 입혀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으로 외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지역의 교육자로서 몸담아온 시간들 속에서도 새로운 창작을 향한 속내를
감출 수 없었고, 이 열정이 오늘도 화폭 앞에 멈추게 합니다.
그렇게 삶에 얽힌 의미를 종이와 붓, 색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합니다.

이희완 화백의 그림은 회화가 아닌 거울 같습니다.
거울은 그대로 비춰내기도 하지만 거울이 되기 위한 뒷면의 불투명 반전이 있듯
안과 밖의 다른 모습은 새로운 조화를 재현해 냅니다.
조용한 목소리, 그 고요한 이면에는 격동적인 선과 색이 요동칩니다.
환갑 개인전을 앞두고 뜻밖의 교통사고로 인해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습니다.
화가에게 시력은 음악가에게 청력과도 같은 것.
이 일을 극복하며 삶의 질박함 앞에서
그의 작업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쪽 눈과 바꾼 그림들...
그 걸림은 고요 속에서 불과 같이 쏟아내는 오늘의 작품들이 되었습니다.

반전은 그의 외적 모습에서도 비춰집니다.
교육자 시절, 만화 속 등장인물 '테리우스' 별명을 얻을 정도의
이국적인 외모와 달리 그의 성향과 사상은 똬뚱 깊이 한국인입니다.
1996년 집필된 '한국 무속도의 표현 연구' 논문은 어쩌면 젊은 세대에게 한국인으로써의
정체성을 잃지 않길 바라는 앞서간 세대의 당부라 여겨집니다.
또한 군산에 머물며 그려낸 서민 삶의 터전과 지역의 경관 역시
붓끝을 통해 재창조 됩니다.

이희완 원로 작가 초대전을 통해 지역 시민과 이곳을 방문하시는 모든 이들이
화폭 안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시길 바라며
전시를 위해 수고하신 작가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9.10
군산시장 강 임 준



산 message II • 72.7×53.0

초대합니다

벌써 여름이 가려합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은 항상 고독합니다. 그리움이 사무치고 사랑이 오려하는 초가을을 따라 사랑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오늘도 고독한 삶의 한가운데서 그림을 그립니다. 사무치는 그리움과 고독이 부딪혀서 깨어진 물거품 속에 비쳐지는 것들을 그리고 삶의 끝자락에서 서서 초점없는 눈동자를 그립니다. 철 지난 바닷가에 파도 소리만 들립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은 공허한 마음뿐입니다. 부디 오셔서 철부지처럼 그린 그림 보여주시면, 어린 아이처럼 눈 반짝이며 좋으신 말씀 듣겠습니다.

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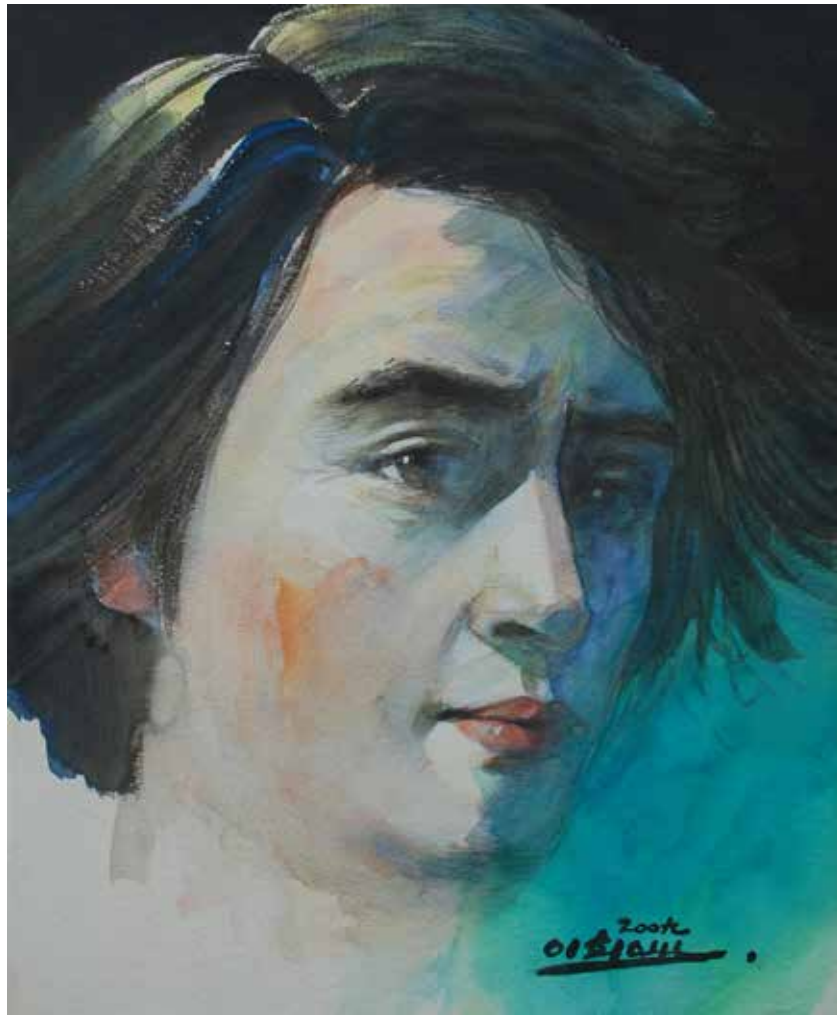
이희완

네모진 공간에 갇혀 해와 달 별을 만들어
천장에 달아 놓고

붉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거울 속을 들여다보며

하루 종일 키득거린다

〈2000년 숨 막히게 더운 여름날에〉



자화상 • 45.5×33.4



산 message I • 72.7×60.6



여인 I • 72.7×60.6



한라산 설경 • 72.7×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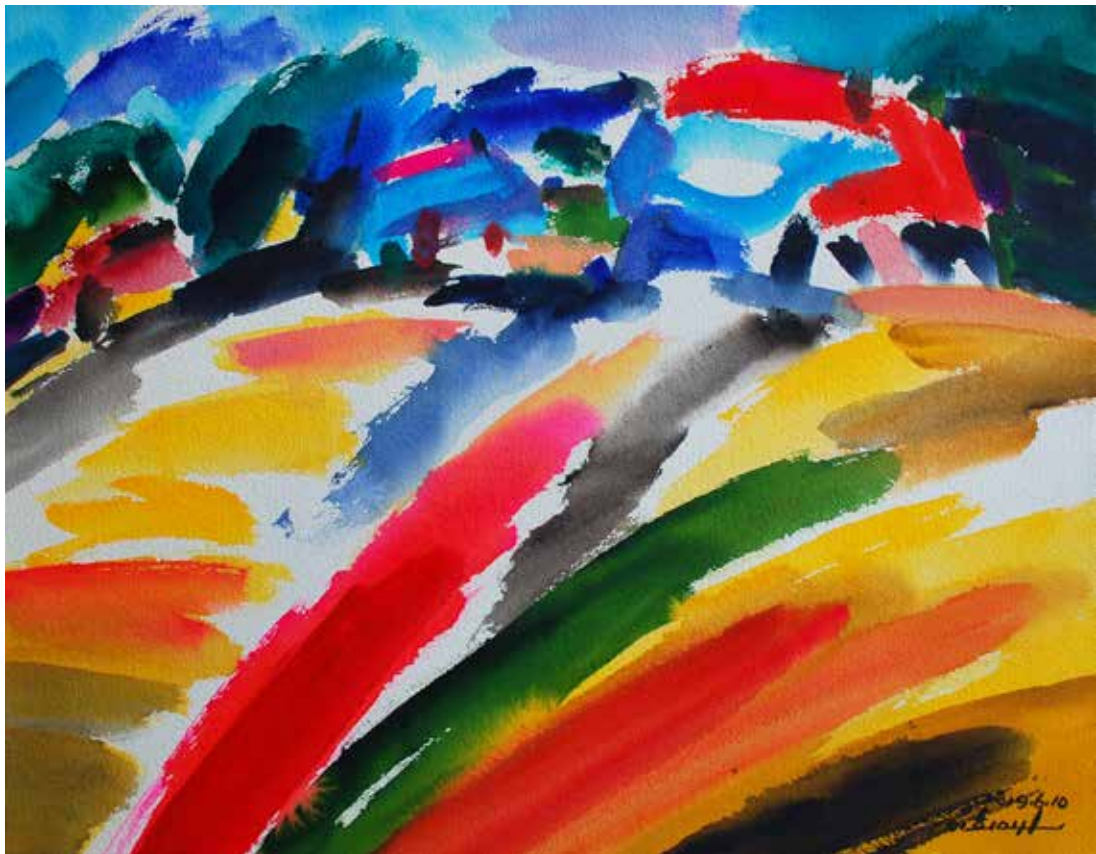
부영이 message I • 72.7×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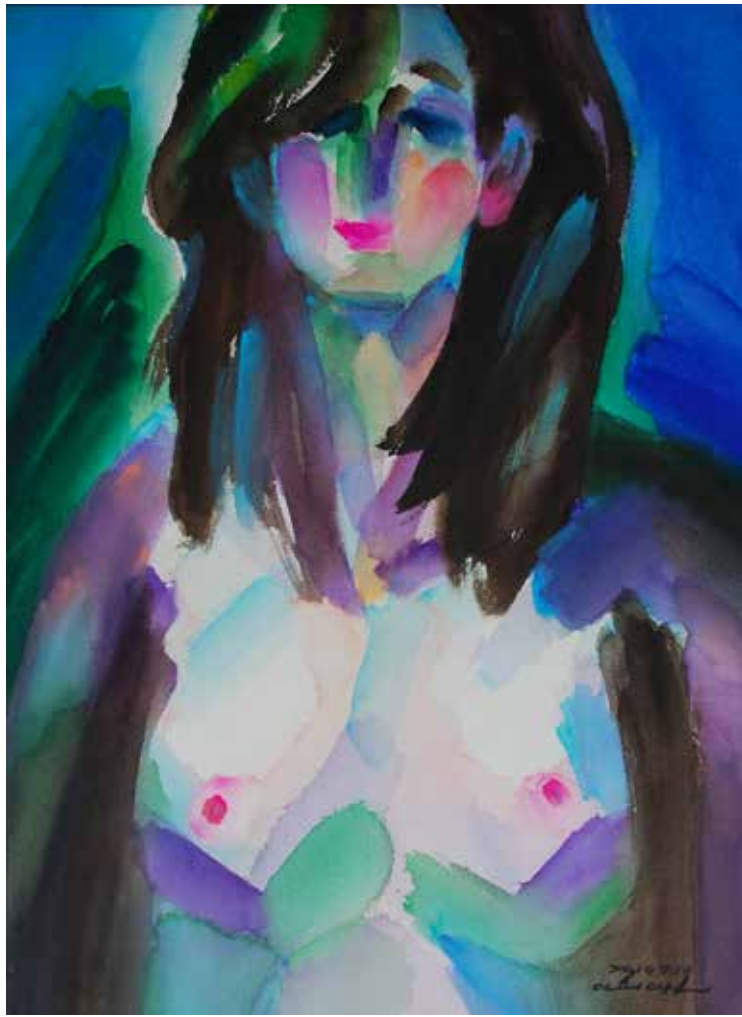
가을산 • 72.7×60.6



대화 • 72.7×60.6



가을-이미지 • 65.1×50.0



어떤 여인 • 72.7×53.0



풍경 • 65.1×50.0



산-이미지 • 72.7×53.0



겨울산 • 72.7×53.0



가슴을 드러낸 여인 • 72.7×53.0cm



풍경 message I • 116.8×91.0



풍경 message II • 116.8×91.0cm



풍경 II • 65.1×50.0



부영이 message II • 72.7×53.0



구부린 여인 • 72.7×60.0



산 • 72.7×53.0



풍경 I • 65.1×50.0

갈증

이희완

비 내리는 날은
빗 국에 개똥 말아먹고
길바닥에 입 벌리고 누워

내리는 빗 물 받아먹고
하루 종일
취하고 싶다

〈1996년 여름 어느날〉



자화상 • 45.5×33.4

이 희 완 LEE HEE WAN

전

- 대한민국 미술대전(국전) 심사 및 운영위원 역임
- 대한민국 수채화 공모대전 심사 운영위원 역임
-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채화분과위원 역임
- 대한민국 아카데미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및 운영위원장 역임
- 전북 미술대전 수채화분과 이사역임
- 전북 미술대전 심사 및 운영위원장 역임

현

-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채화분과 이사
- 대한민국 아카데미 미술협회 서양화분과 이사
- 대한민국 수채화작가협회 자문위원
- 대한민국 회화제 초대작가
- 전북미협 수채화분과 초대작가
- 한국 수채화 원로작가 초대작가
- 한국미술협회 군산지회 회원
- 개인전 12회